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방수진 (아이들세상의원, 교사)

이성봉**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참여한 이후 갖게 된 인식의 변화와 시설 현장에서의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게 응용행동분석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 응용행동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현장에서의 응용행동분석 중재 도입을 위해서 전문 인력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응용행동분석 중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필요한 지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성인 발달장애인, 종사자, 응용행동분석 중재, 인식, 요구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sblee@b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982개이며, 이용인 수는 86,730명에 달한다. 그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약 1,000개 이상이 존재한다(보건복지부, 2019a). 수치상으로 많은 기관이 존재하지만 실제 장애인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지원내용은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응용행동분석 중재는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을 줄이고 적응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증거기반 실제의 응용행동분석 중재는 자폐성장애 아동을 비롯한 장애 아동에게 나타나는 자해행동, 상동행동, 공격행동, 성질부리기, 이식증, 잡기, 침 뱉기, 부적절한 만짐, 물건 파괴와 같은 방해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Carr & Durand, 1985; Wacker et al., 1990), 자조기술, 말-언어 의사소통, 사회화(Leman et al., 2004) 등 다양한 영역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중재 방법은 그 효과가 여러 기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문헌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으며, 미국 외과의사와 미국 심리학 협회에 의해 자폐성장애를 위한 증거 기반의 최상의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다(Autism Speaks, 2020). 응용행동분석은 장애 아동부터 비장애 성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발달장애 아동은 치료가 되지 않는 한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성장한다. 응용행동분석에서는 행동 변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말한다(Cooper, Heron, & Heward, 2017).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응용행동분석 조기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초중고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응용행동분석 중재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가족이 전담하여 책임지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지고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지원사업의 하나이며, 현재 많은 가족들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이 치료나 중재보다는 가족을 대신하는 돌봄의 기능이나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는 할 수 없는 정서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문화 활동에 상당수 치우쳐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b;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대표적인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은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 해소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이 위주이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20) 체류 시간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달려있다. 주간보호시설은 주종사자의 전문분야가 사회복지로 한정되어있고, 현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사로 확대되어 있으나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보건복지부, 2020). 또한 제대로 된 중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인식이 남아 있어 사회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손상희, 2001), 연구조사 결과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도 장애인에 대해 남들과 다르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금순, 박연환, 이범석, 김정이, 2010). 일반적으로 유아들의 경우 4세 정도가 되었을 때 신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자신과 다른 신체적 차이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Derman-Sparks, 1989). 신체적 차이를 인식하고 나면 인식의 단계는 인지적 차이로 이동하게 되고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면 두려움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한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의 부족은 곧 접촉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 영향을 받고(김금순 등, 2010;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김금순 등, 2010;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Au & Man, 2006). 장애인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꺼리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재 기관이 필요하나 현실은 발달장애 아동은 물론 성인을 위한 중재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발달장애는 피해야 하는 두렵고 꺼림칙한 질병이 아니라 단순한 장애일 뿐이며, 그들도 적절한 중재를 받을 권리가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지금은 응용행동분석이 발달장애 아동의 중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많은 부모들이 교육기관을 찾고 있다. 이제는 아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성인 발달장애인도 응용행동분석에 기초한 중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응용행동분석 중재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원 요구 사항을 알아보아 현장에서의 응용행동분석 중재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들의 장애와 문제행동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응용행동분석 적용과 효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응용행동분석 적용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 요구와 개인의 노력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 응용행동분석 이론을 2개월 이상 교육받고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응용행동분석 중재를 참관하였거나 중재에 참여한 경우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근무지	사회복지사 경력(년)	직위	성별	응용행동분석 전공 유무	중재 기간(년)
A	서울	12.0	관리자	여	전공	3
B	서울	8.0	담당	여	비전공	2
C	서울	1.0	담당	남	비전공	1
D	경기도	22.0	관리자	여	전공	3
E	경기도	7.0	담당	여	비전공	3
F	경기도	4.5	담당	남	비전공	4

2. 연구기간 및 장소

연구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는 총 7회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녹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3.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 면담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비대면인 전화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정보에 접촉하기 쉬운 서울 강남 소재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 곳과 서울과는 문화, 정보에 거리가 있으나 서울 다음으로 가까운 경기도 소재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 곳으로 결정하였다.

시설을 선정한 후 전화를 걸어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개별로 심층 면담 질문지와 연구 참여 및 면담 내용 녹음 동의서를 발송하였다. 면담 내용을 미리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동의서를 회신 받은 후,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아래 녹음되었으며, 각각 30-60분이 소요되었다. 녹음된 음성자료는 면담 후 3주 이내 전사하였다.

1) 면담 질문지 개발

이 연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용행동분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는 황보경(2017)의 연구와 김혜영과 이성봉(2018)이 개발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문제에 관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의 초안을 작성한 후 응용행동분석 전공자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 내용을 검토한 후, 응용행동분석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질문지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질문은 총 10개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 면담 질문 주제 분류

대주제	소주제	문항번호
문제행동과 중재	장애 및 문제행동의 유형	1, 2
	중재 방법과 효과	3, 4, 5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인식과 적용	인식과 변화	6, 7, 8
	응용행동분석 적용을 위한	9, 10
	개선 및 지원방안	

2) 면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전화로 먼저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한 다음 연구 내용을 설명

하고 바로 질문을 진행하였다. 질문은 10개의 문항이며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으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뒤에 나올 질문의 답을 미리 언급했을 때는 뒤 번호의 질문을 생략하고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일부 정리되지 않은 응답자의 답변은 정리 후 응답자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적인 설명을 들으며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였다.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화로 재차 질의하여 응답을 받았다.

3) 면담 내용 전사

면담 후 3주 이내 녹음내용을 전사였다. 전화 면담을 어색해하며 불필요한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 경우 전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리 후 기록하였다. 전사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11포인트 110쪽 가량의 한글파일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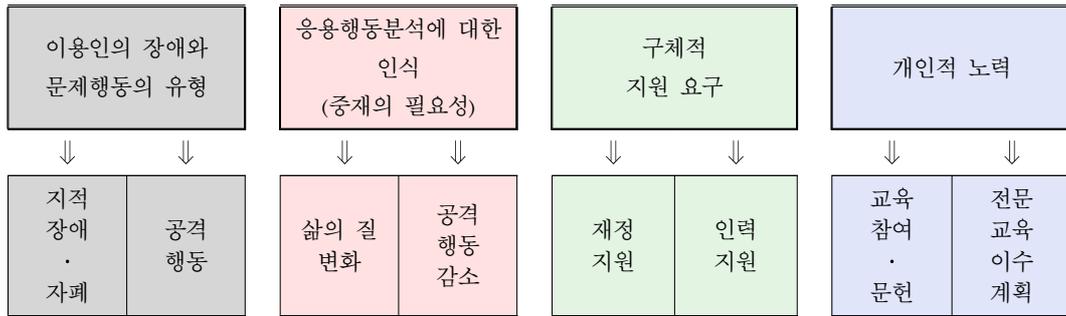
4. 자료 처리

심층면담 질문은 대주제로 문제행동과 중재,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인식과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주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 및 문제행동의 유형, 중재방법과 효과, 인식과 변화, 응용행동분석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의 처리는 Marshall과 Rossman(1999)의 6단계 질적분석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1단계로 자료를 정리하였고, 2단계로 범주화하여 주제 유형을 만들었고, 3단계로 자료를 코딩하였고, 4단계로 자료에 대해 해석하고 점검하였고, 5단계로 대안적 해석과 설명을 찾았고, 6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질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면담 참여자들의 응답을 정리하여 응답자에게 본인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하였고 삭제할 원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모든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및 녹음 동의서를 받았고 구두로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연구 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생략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면담 내용 중 언급되는 인물과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대체 기호(예: OO)로 표기하거나 생략하여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일부 내용의 삭제나 생략을 요청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제로 나누고 다시 각각 2개의 하위 소주제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심층면담 응답 주제 분류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의 장애와 문제행동의 유형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들에게 가장 많은 장애의 유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였으며, 문제행동 중 가장 먼저 중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은 자해행동과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과 폭력성이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은 자폐성장애가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여자 A)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은 지적장애 60%, 자폐성장애 40%예요. (참여자 D)

타인을 공격하고 자해도 있고, 하도 때려가지고 이미 귀가 다 기형이 돼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 때려가지고 청력이 나간 친구도 있고, 피부 손상이 된 친구도 있어요. (참여자 A)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이 생기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이 제일 먼저 중재에 들어가야 해요. (참여자 D)

2. 응용행동분석 적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응용행동분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은 것은 이용인들의 공격행동의 감소를 통한 삶의 질 상승이었다. 문제행동이 심각한 이용인의 경우는 시설에서도 거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있어야 하지만 부모가 항상 함께 있

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자의 경우 모두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행동으로 인해 갈 곳이 없다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중재를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저는 응용행동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잉행동뿐만 아니고 과소행동에도 효과적이예요. 우리는 보통, 성인은 과잉행동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소행동도 많아요. 사람다운 삶. 장애인이어도 장애인답게 살지 않아도 되어요.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삶.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참여자 A)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높은 이용자들이나 훈련 가능한 친구들이 가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낮고 공격 성향이 높은 친구들이라 보니까 복지관처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 가야지.’ 이렇게 안되죠. (참여자 F)

저희도 폭력성이 심하거나 문제행동이 너무 심할 때는 거절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성인 장애인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집에서만 데리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려면 문제행동이 심한 분들한테는 그런 응용행동분석 중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E)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용행동분석이 전공자들이나 학부모들에게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인 관련 협회 차원에서 응용행동분석에 대해 주기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대부분은 응용행동분석을 알고 있었다.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중재를 경험한 후에는 응용행동분석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문제행동의 기능을 알고 적용했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서 직원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참여자 A)

ABA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뭔가 변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매우 변할 수 있다는 긍정

적인 생각! (참여자 B)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 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참여자 C)

효과가 있죠.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D)

3. 구체적인 지원 요구와 개인의 노력

1) 현장 적용의 어려움과 구체적 지원 요구

현장 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중 첫 번째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인력 부족이고, 두 번째는 일관성 부족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응용행동분석 중재를 받아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의 협조가 없어 일관성의 유지가 어려웠다. 세 번째는 응용행동분석 중재 대상자의 거부반응이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내온 자신의 일과나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중재 초기에 심하고 중재 중에도 문제행동으로 인해 중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응용행동분석 전문 인력 부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응용행동분석 전공자가 슈퍼바이저로서 이용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을 찾는 것부터 중재 실행과 직원 교육까지 담당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어렵고 응용행동분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비전공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답하였다.

저희 선생님들은 몇 명 안되고 휴가라도 가면 두세 명 정도거든요. (참여자 B)

어떤 부모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거 안 해도 내가 우리 애 먹고 살 돈은 모아놨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운이 빠지지요. 그래도 집에서는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시설에 왔으면 우리는 또 우리 식으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또 중재를 적용하죠. (참여자 A)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 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오면 스무 살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용인 분이 스무 해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이용인 분이 강박처럼 일상의 모든 것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걸 계속 넣어주려고 하니깐 처음에는 좀 거부하고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여자 C)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응용행동분석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응용행동분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응용행동분석 이론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야기가 되고 적용하는 데 수월하잖아요. 근데 응용행동분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라고 해서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재정 지원과 인력 지원을 말했다. 재정지원은 응용행동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을 위한 지원이기도 하며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이기도 하다. 전문가의 정기적인 방문 지원이 있어도 지급 가능한 재정의 한계가 있었고, 현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와 증재전문가 및 특수교사의 고용이 가능함에도(보건복지부, 2020) 마찬가지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추가 고용이 쉽지 않았다. 또한 응용행동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400만 원을 잡고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기관은 강사비를 400만 원으로 잡기는 쉽지 않아요. 다른 기관에서는 이 예산을 마련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비로 만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원 안 해줘요. 강사의 질도 문제예요. 질 높은 강사, 성인을 아는 사람, 성인 ABA는 접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인은 절대적으로 지시를 빼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이 지시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테크닉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참여자 A)

우선은 환경. 왜냐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환경이 다 열악해요. 이용인 대비해서 활동실이나 프로그램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용행동분석이 개별 시행에 들어가거나 할 때 공간이 협소해요.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특수교사하고 작업치료사, 언어 치료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만큼의 급여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겠죠. (참여자 D)

상주직원이 어려우면 주에 한두 번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C)

직접적으로 저희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ABA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한 번씩 와서 이용인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

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E)

2) 개인적 노력

응용행동분석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전공자 2명은 스스로 비용을 들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응용행동분석 전문가가 되어 치료사로서 추가적인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전공자들의 경우 본업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응용행동분석을 공부하였으며, 이후 개인적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도 계속해서 응용행동분석을 공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하였다.

응용행동분석 비전공자인 종사자들도 외부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공부하거나 책을 구입해 읽으며 응용행동분석 전문가인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지도를 받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공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여유가 있으면 자비를 들여 더 공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응용행동분석을 어느 정도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참여자 B)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응용행동분석을 배울 생각은 있어요. (참여자 C)

여유만 된다면 응용행동분석을 배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심리적인 여유가 안돼서 그렇지만 환경이 된다면 비용을 지불해서 배울 수 있죠. (참여자 E)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응용행동분석 적용에 대한 인식과 적용과 관련된 요구를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은 첫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의 장애와 문제행동의 유형, 둘째, 응용행동분석에 적용에 대한 인식, 셋째, 시설에서 응용행동분석 적용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넷째, 개인적 노력으로 분류되었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의 장애와 문제행동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다. 본 연구 대상인 서울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연구 참여자는 이용인의

90%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이용인이 각 60%와 40%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인식은 중재의 필요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은 많은 경우 공격행동을 보였으며 이들의 공격행동은 자신과 타인의 신체까지도 심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필요로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응용행동분석으로 중재를 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한 후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의 문제행동 중재 효과로 인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변화하였다. 응용행동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입장에서 이용인의 입장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이용인의 욕구를 찾는 적합한 방법이 응용행동분석이라 것을 종사자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응용행동분석 중재가 공격행동 감소나 과소행동 증가를 가져와 이용인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응용행동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일어났다. 김혜영과 이성봉(2018)에 의하면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행동재활 서비스를 경험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와 문제행동의 감소, 언어능력 및 인지력 향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중재의 효과 또한 부모들의 경험과 다르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서비스를 경험해보아야만 알 수 있었다. 이정해와 최진혁(2020a)은 경험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응용행동분석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경험적 기회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전문 기관의 교육만이 아닌 시설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응용행동분석 중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현재 아동에 집중되어있는 응용행동분석의 저변을 폭넓게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응용행동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정해와 최진혁(2020b)의 연구에 따르면 중재 전문가에 대해서는 임상경력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전문 인력은 단시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 또한 많은 임상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축적된다. 면담의 대상이 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빙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재정이 열악하여 상주 전문 인력을 고용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할 재정조차도 마련하기 어렵다. 법령의 개정으로 상주 인력의 전문 분야가 사회복지에서 특수교육, 언어재활, 작업치료까지 확대되었음에도 이들을 고용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의 지원은 인력만이 아니라 시설에도 해당된다. 개별 또는 집단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시설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소화할 공간도 부족하다. 따라서 응용행동분석 중재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을 위한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 기관의 의지와 협조가 동반될 때 효율적인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스스로가 끊임없이 외부의 응용행동분석 교육에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응용행동분석 비전공자들은 직접 응용행동분석 중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외부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시설마다 외부의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교육받고 있었다. 스스로는 응용행동분석 관련 도서를 구매하여 읽고 있었으며, 응용행동분석 전문가인 직장 상사를 통해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의 중재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는 비전공자라는 지식의 한계와 본업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로 인한 체력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종사자들은 응용행동분석의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재정과 체력의 여유가 있다면 언제라도 전문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2. 제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응용행동분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재정 지원은 인력과 시설을 위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응용행동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재교육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한 후, 재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시설 현장에서 의무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국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조건을 두는 것과 같이 재교육의 성과를 시설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재교육 받은 전문 인력들은 시설 현장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응용행동분석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응용행동분석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하여 필요한 시설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사회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의 전문 인력들이 돌아가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위한 재정 지원의 경우 시설의 장기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구조 변경이나 증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설을 일정 규격으로 동일한 범주 내에서 변화를 주어 리모델링하거나 증설한다면 추후 시설 이용인이 줄어든다 해도 지역의 아동, 노인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의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 필요한 지원 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응용행동분석 적용 후 효과에 대한 인식만을 조사하였다. 추후 연구에

서는 시설 종사자들의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그 인식에 대한 변화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 인원이 제한적이었으며,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면담 시간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용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금순, 박연환, 이범석, 김정이 (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 일반인, 의료인, 장애인의 비교. *재활간호학회지*, 13(1), 13-22.
- 김혜영, 이성봉 (2018). 행동재활 서비스에 대한 장애 아동 부모의 경험과 지원 요구. *행동분석·지원연구*, 5(2), 1-20.
-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손상희 (2001).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태도 경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7, 153-177.
- 이정해, 최진혁 (2020a). 응용행동분석(ABA) 적용에 대한 부모와 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자폐성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6(3), 395-419.
- 이정해, 최진혁 (2020b). 응용행동분석 중재에 대한 치료지원 전문가의 경험과 인식. *행동분석 지원연구*, 7(2), 119-140.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실태조사 연구. 서울: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황보경 (2017). 학령기 장애아동 어머니의 언어치료 경험·인식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경산.
- Autism Speaks (2020). *Parent's Guide to Applied Behavior Analysis for Autism*.
<https://www.autismspeaks.org/sites/default/files/2018-08/Applied%20Behavior%20Analysis%20Guide.pdf>
- Carr, E. G., & Durand, V. M. (1985). Reducing behavior problem through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8(2), 111-126.

- Cooper, J. O., Heron, T. E., & Heward, W. L. (2015). 응용행동분석(정경미, 신나영, 김혜진, 양유진, 양소정, 장현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출판연도 2007)
- Au, K. W., & Man, D. W. (2006).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y: A comparison between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9(2), 155-160.
- Derman-Sparks, L. (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834 Connecticut Avenue, NW, Washington, DC 20009-5786.
- Lerman, D. C., Vorndran, C. M., Addison, L., & Kuh, S. C. (2004). Preparing teachers in evidence-based practices for young children with autism. *School Psychology Review*, 33(4), 510-526.
- Marshall, C. & Rossman, G. (199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 Wacker, D. P., Steege, M. W., Northrup, J., Sasso, G., Berg, W., Reimers, T. & Donn, L. (1990). A component analysis of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cross three topographies of severe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23(4), 417-429.

The Awareness and the Requirements of Daycare Center Work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towards Applied Behavior Analysis

Bang, Soo Jin (The Clinic, Children's World)

Lee, Sung Bong*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the changed awareness since the social workers who directly provide services to have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with applied behavior analysis and about the requirements to be supported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applied behavior analysis in the fiel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workers in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as follows: First, workers took a very positive direction that it needs to be applied for them because applied behavior analysis intervention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got the distinct result, Second, professionals and financial supports were required for the field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pplied behavior analysis intervention is the effective method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oposed the demands to apply it concretely at daycare centers.

Keywords : Daycare cente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rker, Applied Behavior Analysis intervention, Awareness, Requirement

게재 신청일 : 2021. 03. 14

수정 제출일 : 2021. 04. 05

게재 확정일 : 2021. 04. 12

* 이성봉(교신저자): Dept. of Special Education, Baekseok Univ.(sblee@bu.ac.kr)